



“쓰임새 많은 배우 될 것”

최근 종영한 MBC ‘투깝스’의 조정석

사기꾼·형사 오가며 능숙한 연기 선보여

“1인2역 연기하려면 체력이 필수죠”

“1인 2역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장 신경 쓴 것 역시 첫째도 체력, 둘째도 체력이었어요.”

최근 종영한 MBC TV 월화극 ‘투깝스’에서 ‘원맨쇼’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준 배우 조정석(38·사진)은 22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형사 차동탁과, 사기꾼 공수창이 빙의된 차동탁 두 가지 모습을 능수능란하게 오가며 또 한 번 인상 깊은 연기를 남겼다.

조정석은 “첫 방송 후 시청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많은 분이 심란해 했지만 워낙 팀워크가 좋아서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투깝스’는 ‘빙의 수사’라는 제지 있는 소재로 주목 받았지만, 사건부터 로맨스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서 촘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정석은 이에 대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단다”고 솔직하게 공감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시퀀스 하나하나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등장인물이 많고, 풀 내용도 많아 디테일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는 2017년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예전에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

서 신인상 탈 때 제 주변 형들이 그렇게 좋아해 줬는데, 이번에 공수창 역의 (김)선호가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그랬다”고 전했다.

조정석은 파트너였던 김선호와 송지안 역의 해리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선호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절 워낙 잘 따라줬어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였죠. 저는 초반에 선호가 공수창을 연기하는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해리는 연기 논란이 있었지만 전 그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 (웃음) 전 해리의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해리가 최근 SNS에 “반성하겠다”고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참 멋있다”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짐하는 느낌”이라고 격려했다.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해 무대에서 주로 활약했던 조정석은 이후 스크린과 TV로 활동 영역을 넓혀 영화 ‘건축학개론’(2012), ‘관상’(2013), ‘역린’(2014), ‘특종 : 량첸살인기’(2015), ‘시간이탈자’(2016), ‘형’(2016)과 드라마 ‘더킹 투하츠’(2012), ‘최고다 이순신’(2013), ‘오 나의 귀신님’(2015), ‘질투의 화신’(2016) 등에 출연, 개성 강한 연기로 사랑받고 있다.

“영화, 드라마,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는 원동력은 ‘쓰임새가 많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 덕분인 것 같아요. 어디든 다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연극 ‘아마데우스’예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고, 기존 연극과 달리 밴드까지 구성돼 음악이 굉장히 멋진 극이에요. 팬들에게 했던, 매년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기도 했고요. 앞으로



도 작품 장르 배분을 남다르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목표는 ‘변신’과 ‘도전’입니다.”

늘 에너지 넘쳐 보이는 조정석도 연기 인생에서 두 차례 슬럼프는 있었다. 그는 “2005년 뮤지컬 ‘그리스’를 할 때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할 때였다”며 “2005년에는 단독 캐스팅으로 9개월간 공연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2009년에는 역할에 너무 빠져서 제 평소 모습을 잃어버렸다. 답은 둘 다 ‘휴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정석은 가수 거미와 오래 교제 중이기도 하다. 그는 연인에 대해 “저의 어떤 작품이든 응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고, 잘 만나고 있다”며 “결혼계획은 아직 없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사실 좀 조심스럽다”고 수줍게 말했다. /연합뉴스



‘신과함께’ ‘1987’ 쌍끌이 주역 하정우

송강호 이어 한해 2천만 배우로 등극

두 작품서 색다른 매력 눈길

‘PMC’ ‘신과함께2’ 기대도

배우 하정우(사진)가 ‘신과함께-죄와벌’과 ‘1987’ 두 편으로만 관객 2000만 명을 모았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벌’은 누적 관객 1354만 2327명,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개봉한 ‘1987’은 666만8457명을 각각 기록했다.

두 영화를 합친 관객은 2021만784명이다. 한해 개봉한 주연 영화로 관객 2000만 명을 넘긴 배우는 송강호에 이어 하정우가 두 번째다.

송강호는 2013년 8월 ‘설국열차’(935만 명)와 9월 ‘관상’(913만명)에 이어 12월 개봉해 해를 넘겨 1137만명을 동원한 ‘변호인’까지 1년간 3편의 작품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2천만 배우에 오른 바 있다.

하정우는 ‘신과함께’와 ‘1987’에서 전혀 다른 매력의 캐릭터를 연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신과함께’에서는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이성을 지닌 저승 참차사의 리더 강림역을 맡았다. 원작 웹툰과 달리 진기한 변호사와 강림역을 하나로 합친 캐릭터여서 원작 팬들의 우려가 컸으나, 하정우는 맛깔스러운



연기로 우리를

쫓아냈다. ‘1987’에서는 스물두 살의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을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공수사처 박처장(김윤석)

에 맞서 부검을 밀어붙이는 서울지검 최경사를 연기했다. 하정우 특유의 능청스러운 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가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하정우의 활약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에도 그가 주연한 영화 ‘PMC’와 ‘신과함께2’가 나란히 개봉을 앞두고 있다.

‘PMC’는 하정우가 ‘더 테러 라이브’(2013)의 김병우 감독과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 영화로, 판문점 지하 벙커를 무대로 펼쳐지는 비밀작전을 다룬다. ‘PMC’는 하정우가 설립한 제작사인 퍼펙트스튜디오와 그의 소속사이자 정우성 제작사인 아티스트 컴퍼니가 공동 제작하는 작품이다.

‘신과함께2’는 강림과 수홍(김동욱)의 재판 여정이 그려지며, 1편에서 복선이 깔렸던 강림의 숨은 가족사가 드러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저글러스 (재)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55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재) 50 미래기획 2030 (재)	15 특선다큐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방학특집 청소년 공감콘서트 은 드림 스킨 (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15 지오메카 4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만 지도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4	00 4시 뉴스집중		00 양코르 MBC 스페셜	00 겨울방학 특선 자두와 친구들 30 겨울방학 특선 자두와 친구들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산 (재) 3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KBS 스페셜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 9 40 다큐 공감								
10	3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의문의 일승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해외결작드라마 컬렉션	10 철부지 브로망스 -절찬상영중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0 시사기획 창	35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재)	05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0 극한직업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오늘
(중국 비경 서해객유람기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섬마을 행복환 집배원 마이나〉
우이산(우이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얼마 깨트리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매생이 굴국과 닭다리 굴파구이〉	16:15 두다다강	〈낯선 즐거움 이소리얼 겨울기행 2부 오래된 도시로의 초대〉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타리 휴먼 다큐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생명 전략 반식-은밀한 전쟁〉
07:45 출동! 슈퍼왕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생명 전략 반식-은밀한 전쟁〉
08:00 덩동덩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난 물고기(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00 몬카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30 한국영화특선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방가 젓	19:30 EBS뉴스	〈축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7일 乙卯)			
子	48년생 종일 등분서주할 뿐 실익이 약하다. 60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책이다. 72년생 오래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84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행운의 숫자 : 63, 15	午	42년생 부담스럽다면 조용히 피해 나가자. 54년생 맹점을 보인다면 흉의 원인이 되리라. 66년생 본보기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느니라. 78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90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1, 10
丑	49년생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하느니라. 61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73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로다. 85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17	未	43년생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필요 없느니라. 55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67년생 아무런 장애 없으니 속도 내도 되겠다. 79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 보이니 매사에 신중 하라. 91년생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4, 70
寅	50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62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4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봐야겠다. 86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43	申	44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6년생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국량이 이르렀다. 68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80년생 머지않아 적용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3, 60
卯	51년생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을 것이다. 63년생 상황이 종료되는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야겠다. 75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대처하라. 87년생 압박 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4, 18	酉	45년생 실제로 접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속단하지 말라. 57년생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69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81년생 매끄럽지 못하니 탈이 나지 않게 하라. 행운의 숫자 : 20, 30
辰	52년생 이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4년생 보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88년생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5, 54	戌	46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8년생 현재의 고통은 장래를 위한 대답들이 될 것이다. 70년생 한 발씩만 양보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 82년생 단검은 불리하므로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 설정하라. 행운의 숫자 : 95, 37
巳	53년생 사필귀정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65년생 내인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77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89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26, 24	亥	47년생 성과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 59년생 시작이 반이니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71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83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